

 보 도 자 료  <i>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</i>			
보도 일시	2022.5. 31.(화) 조간 2022.5. 30.(월) 11:00	배포 일시	2022. 5. 30.(월) 06:00
담당 부서 <총괄>	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용태 (044-200-5220)
		담당자	사무관 류선희 (044-200-5229)

해양박물관 보물창고를 공개해요!

-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수장고 개방 행사 시민참여단 모집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와 국립해양박물관(관장 김태만)은 해양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8일(금) 개최 예정인 수장고 개방 행사에 참가할 시민참여단을 5월 31일(화)부터 6월 26일(일)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.

해양박물관 수장고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인공재해에도 소장유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공간으로 평소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. 해양박물관 수장고 개방 행사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해양유물과 수집된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업무공간 등을 시민들에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
이번 개방 행사는 해양문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, 참가자들은 7월 8일(금) 해양박물관의 수장고 및 소장유물 현황, 유물 등록작업 과정 등을 소개한 영상을 관람한 후, 올해 문화재로 지정된 나전대모쌍룡문함(螺鈿玳瑁雙龍文函)* 등 문화재급 자료 10점 내외를 전문 학예사의 해설과 함께 만나고, 목재 및 도토(도자기)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까지 돌아볼 수 있다.



* 나전대모쌍룡문함(螺鈿玳瑁雙龍文函)은 왕의 복식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로, 표면 윗면 용 문양 장식을 대모(거북이 등딱지)와 나전 및 어피로 장식하여 해양예술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음

참가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박물관 누리집(www.knmm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6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.

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은 “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수장고 개방 행사를 마련하였다”며, “이번 행사가 해양유물을 시민들과 공유하고, 해양유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“우리의 해양문화유산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유물의 발굴과 보존이 중요하다”며, “앞으로도 해양유물 등 자료를 수집·보존·연구함으로써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시·교육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용태 (044-200-5220)
		담당자	사무관 류선희 (044-200-5229)
담당 부서 <협조>	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	책임자	팀 장 이경희 (051-309-1861)
		담당자	학예사 방민규 (051-309-1862)



참고 1 국립해양박물관 수장고 개방 행사 개요

□ 행사 개요

○ (일시) '22년 7월 8일(금)(예정)

※ 개관 10주년 기념식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
○ (대상자 선정) 초청인(기념식 참석자)과 일반인 선정

구분	대상 및 선정방법
초청인 (50명)	· 유관기관장, 단체장 등 해양관련 종사자 · 연구자, 교육자, 언론인 중 해양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· 기증·기탁자
일반인 (50명)	· 홈페이지 공개모집

-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주년 수장고 개방 행사 시민참여단 모집

공고 및 모집(5.31.~6.26.)	홍보	결과발표 및 게시 (6월말 예정)
홈페이지 별도 공고 창을 통해 안내 및 접수	⇒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(SNS 등)	⇒ 참여자 개별 통보

○ (개방 방법) 각 30분 내외 **총 6회**(오전·오후) 진행

대상	개방시간
초청인	오후 : 기념식 행사 후(1회)
일반인	오전 : 9:30~14:30(5회)

※ 일정 및 인원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○ (운영 동선)

수장고 소개	1수장고	7·8수장고	질의응답
· 동영상 상영	· 등록작업 및 대표자료 소개	· 목재 및 도토자료 소개	· 질의응답
5분	10분	10분	5분

참고 2 주요 공개 자료



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21호 <나전대모쌍룡문함>
왕의 복식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로,
표면 윗면 용문양 장식에 대모(거북 등딱지)와 나전
및 어피로 장식되어 해양예술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음



부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200호 <한글조선지도>
현재까지 알려진 한글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로 추정,
울릉도와 우산도(독도)뿐만 아니라 대마도까지 표기되어 지도
제작 당시 한국인의 생활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



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8호 <관음보살도>
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의 신앙대상이자 자비로운 구원의
존재로서 항해자들은 관세음보살에 의지해서 바닷길의
위험을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조선 후기 관음보살도의 다양한
신앙적 기능과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



<죽도제찰(1837)>
일본 니가타해안에 세운 경고판으로 "죽도(현 독도)는
조선땅이므로 항해를 금지한다" 는 내용이 쓰여있음.